

'26. 6. 26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○ 美, 뉴욕 총성에 시민들 '혼비백산'... 미성년자 체포

- 6.19 언론은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, 경찰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총기 1정을 회수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이번 총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, 정확한 범행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언

○ 美, 시카고서 주말 사이 총기 사건 20여건 발생...7명 사망

- 6.22 언론은 美 노예해방 기념일이 낀 6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20여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38명이 다쳤으며, 총격의 경위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보도.

※ 美 시카고 시장은 “노예해방 기념일을 맞아 축하와 성찰의 밤이 돼야 했던 시간이 끔찍한 폭력 행위로 산산조각이 났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” 이라 부언

○ 캐나다, 유대인 정착 중심지에서 총격전...경찰관 등 3명 사망

- 6.23 언론은 캐나다 몬트리올 번화가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경찰관·시민·용의자 등 3명이 사망했으며, 경찰 당국이 유대인 정착 중심지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기와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

아·태

○ 용인시, 차량 돌진 대비 '충돌 방지 시설 의무화

- 6.18 언론은 경기도 용인시가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'충돌 방지 시설'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용인시는 충돌

방지 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

※ 조례는 주차 구획선과 건축물 사이에 2톤 차량이 시속 20Km 속도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부언

○ 경북 경주, 월성원전에 국내 최초 드론 방어 체계 구축

- 6.18 언론은 한수원 월성 원자력본부에 국내 원자력발전소 최초 드론 방어 체계가 마련됐다고 하며 월성본부는 최근에 대드론 방어 체계를 적용한 물리적 방호 전체 훈련을 시행했다고 보도

※ 훈련은 불법 드론 침입과 육상 침입에 각각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대 테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했다고 부언

○ 韓, 생물테러 대응 실전훈련 강화... 유관기관 공조체계 점검

- 6.21 언론은 문경시보건소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한 초동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며,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·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보도.

※ 훈련은 생물테러 대응요원의 초동조치 역할, 생물테러 다중탐지키드 사용법, 검체 채취 및 이송 실습, 개인보호구 이해 및 착·탈의 등 훈련을 했다 부언.

○ 파키스탄 북서부 연쇄 폭탄 공격 발생...7명 사망

- 6.20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툽크와주 반누 지역에서 첫 폭발 후 구조 활동 중에 추가로 폭발하는 연쇄 폭발이 발생해 7명이 사망, 당국은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

※ 반누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의 대표적 테러 위험지역으로 최근 TTP 활동 증가로 지역 치안 불안과 추가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부언

○ 韓, 단속강화에도 '혐오성' 허위 신고 여전...극단주의로 낭비되는 공권력

- 6.22 언론은 최근 사회적·정치적 이슈로 우리 사회에 극단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지역, 집단, 정치인을 겨냥한 혐오 감정 등이 협박성 게시글로 이어지는 「스와팅」이 지난 일주일간 지속되고 있다 보도

※ 「스와팅」은 美 특수기동대 스왓(SWAT)에서 유래한 용어로, 특수부대가 출동할 만큼의 테러나 범행을 가장한 악위적 허위 신고를 의미, 처벌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러시아 다게스탄 종교시설 연쇄테러 사건

- '24.6.23 러시아 북캅카스 다게스탄공화국 데르벤트 및 마하치칼라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이 정교회 성당, 유대교 회당, 경찰초소를 동시 공격하여 경찰관·종교인·민간인 등 20여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
- 테러범들은 자동소총과 화염병 등을 이용해 종교시설과 치안기관을 연쇄 공격하였으며, 러시아 당국은 즉시 대테러작전을 전개하여 용의자들을 사살하고 테러 사건으로 공식 규정
- 사건 이후 러시아는 종교시설·공공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대테러작전을 확대하였으나, 온라인 급진화와 자생적 극단주의자 증가로 인해 소규모 분산형 공격 위협이 지속 제기
- ※ 국내도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설, 각종 다중운집 행사 개최시 SNS·텔레그램 등으로 급진화된 개인 및 집단에 의한 분산형, 자생형 테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
테러 상식

< 분산형·자생형 테러 >

(Decentralized & Self-Radicalized Terrorism)

- (개요) 분산형·자생형 테러는 특정 테러조직의 직접적인 지휘·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또는 소규모 세포조직이 인터넷, SNS, 암호화 메신저 등을 통해 극단주의 사상에 노출시켜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테러 형태를 의미함
- (특징) ▷ SNS·암호화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급진화 / ▷ 드론·AI·가상자산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 증가 / ▷ 종교시설·학교·공연장·다중이용시설 등 연성 표적(Soft Target) 공격 / ▷ 소규모 인원으로도 사회적 공포를 극대화 가능
- (사례) ① 러시아 다게스탄 종교시설 연쇄테러(2024)
② 러시아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(2024)
③ 유럽·북미 지역 외로운 늑대(Lone Wolf) 테러
- (대응) 향후 테러는 특정 국가나 분쟁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급진화된 개인이 일상생활 공간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의 예방·신고 체계 강화가 중요함.